

따르다: 고대의 길에서 새로운 삶을 찾다

## 2주 차 “아름다운 길”

창세기 1, 3장; 출애굽기 3장; 시편 19편, 시편 29편

2023년 1월 8일

• 이제...지난 주 메시지를 시청했다면 이 시리즈의 기본 전제를 알 것입니다.  
도전적인 것입니다.

-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은 목적과 의미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 우리 모두는 풍요롭고 깊은 삶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깊이 있는 삶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아이러니합니다.

목적, 임재, 깊이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그래서 한쪽에는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십시오.”

- 그리고 반대편에 서서 “나는 이런 삶을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 그러나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 내가 서 있는 위치와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사이의 거리.
- Dallas Willard는 이 거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슴 아픈 필요를 안고 있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인'으로 확인된 사람들이 제자가 될지 여부 -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방법을 그에게서  
꾸준히 배웁니다.

하늘 왕국의 생명이 인간 실존의 구석구석까지 침투합니다.”

— Dallas Willard, *The Great Omission: Reclaiming Jesus's Essential Teachings on*  
제자도

- 좋은 소식과 이 인용문을 공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신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 당신은 '더 깊고, 더 많은 선물...더 의미 있는 것.'
- 당신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더 많아져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은 보편적입니다.
- 이것이 제가 이 일련의 강연이 필수적이라고 믿는 이유입니다.

-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 이제 예수님은 정말 분명하십니다.
- 그분은 길이십니다.
- 그는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런 종류의 삶에 이르는 문자 그대로의 길.
- 그러나 어떻게 그분을 찾거나 그분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 그것이 이 시리즈의 내용입니다.
- 우리는 수세기 동안 존재해 온 고대 길에서 새로운 삶을 찾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들, 우리가 이 삶을 경험한 사람들  
욕망, 그들은 이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에 “듣는길 The Way of Listening”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이번 주에 이야기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름다움의 길"
- 아름다움이 어떻게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 아름다움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증가시키는가?
- 그것은 통로일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중요한 것입니다.
- 인류 역사 속으로 조금 되돌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저는 1000년이 조금 넘는 러시아의 이교도 왕자 블라디미르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 블라디미르는 사람들을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요 종교를 조사하고 보고서를 가져옵니다.
- 아이디어는 단순했습니다.
-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대표단으로부터 최고의 종교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가 최고라고 느꼈던 것을 선택하십시오.
- 연도는 988년이었습니다.
- 글썬요, 대표단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들의 습관과 의식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다양한 종교, 비잔틴 수도에서 돌아온 그룹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을 끌었던 콘스탄티노플.
- 그들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분명히 그런 것이 없음이요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은 지구상 어디에서나. 우리는 당신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의 봉사가 모든 사람의 예배를 능가함을 다른 장소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 그래서 블라디미르가 정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 신학이나 변증론이나 윤리 때문 이 아니라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아름다운 것과 우리가 거룩하거나 신성하다고 여기는 것.
-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리움과 관련된 감정을 연결했습니다.
- 근데 오늘?
- 긴박감?
- 편리함에 대한 우리의 요구?
- 우리의 물질주의?
- 연결하고 듣는 방법으로 모든 대체된 아름다움을 갖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게서.
- 그러나 태초부터 아름다움은 항상 하나님이 그의 가장 복잡한 창조물인 우리와 연결하십시오.
- 특히 자연의 아름다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우리의 기원에 대한 창세기 설명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십시오.
- 인류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 정원에서 시작합니다.
- 아름답고, 열매가 많고, 꽃이 만발하고, 광활하고, 야생의 정원.
- 자연 속에 있었습니다.
-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동산에서...서늘한 아침에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 창세기 3장은 그들이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 출애굽기 3장으로 빨리 감기.
- 모세는 광야에 있습니다.
- 그런 다음 읽습니다.

출애굽기 **3:1-2**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 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 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 어딘가에서 하이킹을 하다가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 뭔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 그의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 다윗이 정확히 그 내용을 말하면서 쓴 매우 잘 알려진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9:1-6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 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 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 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 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 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 다윗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 몇 장 후에 우리는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시인 시편 23편 을 읽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우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영혼이 회복되는도다.

- 영혼의 회복 작용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능한가?
- 마치...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관찰할 때?
-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쓴 다른 시편을 좋아합니다.
- 하지만 먼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관계...이 믿음...이 연결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류와 그들의 창조주가 우리가 도덕적 치료적 이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부패할 것입니다.

-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생각입니다...
- 그리고 삶은 편안해야 합니다...

-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 그러나 다윗의 다음 시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생각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미묘한 방식으로, 그의 주된 역할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시편 29:3-11**

주님의 목소리가 물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찌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찌개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론 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 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다스리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 이것은 폭풍을 관찰하는 다윗입니다.
- 나는 그가 나무 아래나 동굴에서 기다리며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 그는 그것의 일부입니다.
- 그리고 그는 그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 이 폭풍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 배우는 것.
- 폭풍 속에서 말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는 이 느낌...이 생각...자연이 원래의 성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러한 추세는 예수님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러 어디로 가십니까?
- 자연
- 그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 창조의 아름다움에 몰입했습니다.

• 아름다움과 자연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 1200년대 교부이자 가장 존경받는 아시시의 프란시스의 프란시스

기독교 역사상 개인들은 바로 이것에 대한 노래인 *Canticle of the Sun*을 썼습니다.

• 다음 단어를 들어보세요.

•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전능하신 주님!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과 모든 영예와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축복. 지극히 높으신 당신께만 그들은 속해 있습니다. 필멸의 입술은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발음하십시오.

• 나의 주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 특히 나의 주 형제 태양을 통해 찬미받으소서.

누가 하루를 가져오는지; 당신은 그를 통해 빛을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는 아름답고 빛납니다

그의 모든 영광! 지극히 높으신 당신의 형상을 지니고 계십니다.

• 주님, 자매님 달과 별들을 통해 찬양받으십시오. 당신이 만드신 하늘에

밝고 소중한 아름다운 그들.

• 나의 주님, 바람과 공기, 구름과 폭풍, 그리고 모든

당신이 당신의 피조물에게 생계를 제공하는 날씨.

• 주여, 물 자매를 통해 찬미받으소서. 그녀는 매우 유용하고 겸손하며

소중하고, 순수합니다.

• 나의 주여, 당신이 밤을 밝히는 불 형제를 통해 찬미받으소서. 그는

아름답고 쾌활하며 강력하고 강합니다.

• 우리를 먹이고 다스리며,

색색의 꽃과 허브로 다양한 과일을 생산합니다.

• 나의 주여,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이들을 통해 찬양을 받으소서. 하는 사람들을  
통해

질병과 시련을 견디십시오.

• 평안히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극히 높으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면류관을 받을  
것임이로다.

• 내 주여, 생명이 없는 우리의 자매인 육체의 죽음을 통해 찬미받으소서.

사람은 탈출할 수 있습니다. 대죄 가운데 죽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 그녀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행복한 사람들

당신의 가장 거룩한 뜻.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 나의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감사하고 큰 겸손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 그는 창조물을 통해 움직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자신도 봅니다.  
제대로, 그것에 몰입.
- 참조, 아름다움은 통로입니다.
- 아름다움은 지구상의 생명체를 생존 가능하게 만드는 불필요한 추가 요소가 아닙니다.
- 우리는 아름다움으로 형성됩니다.
-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아름다움을 깨닫는다.
- 우리는 아름다움을 관찰할 때 겸손함을 얻습니다.
- 우리는 스스로 부품 창조를 볼 때 품위를 얻습니다.
- 우리는 창조의 웅장함을 볼 때 관정을 얻습니다.
- 그리고 때로는 미풍 속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 몇 년 전부터 저는 경외감이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 경외감은 쉽게 공유할 수 있지만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입니다.
- 당신이 경외감을 느낄 때, 당신이 그것을 느낄 때, 당신은 그것을 압니다.
- 아름다움을 목격하면 경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 경외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 삽화: Garrett
- 저에게는 몇 년 동안 그와 저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와 무신론자.
- (참고로 저는 목사입니다).
- 그러나 그는 우리 관계의 친밀함과 거리에서 큰 유머를 찾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 명심하세요. 그는 제 친한 친구이고 우리는 함께 여행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습니다.
- 어느 날 그가 어울리자고 했고, 나는 그것이 그냥 같이 시간보내는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시간이 몇 분이 지나자 그는 진지해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 그는 “무신론자가 되어도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능합니까?”라고 말합니다.
-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죠?
- 그는 질문 뒤에 숨은 마음을 설명했다.

그의 삶에서 독실한 예수 추종자들을 존경했습니다.

-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길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와 연결된 삶의 방식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그분의 가르침은 사실 공허한 것입니다.
- 하지만 계속해서 독일계 미국인의 아이디어를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 폴 틸리히.

-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 존재...
- 하이퍼빙...
- 존재의 근거...
- 이벤트.
- 그가 나에게 사건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을 때 나는 우리가 산에 갔던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자전거를 타면 산 정상에 도달하고 경치에 압도될 것입니다...

- 그리고 나는 단순히 “그 느낌? 누구야? 저게 뭐예요?”
-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욕설을 떨어뜨렸다.
-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물었습니다.
- 무신론자 친구가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용하시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 뉴욕타임스에서 이번주 제목의 기사를 보고 약간 놀랐습니다.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

- 분명한 이유로 나는 매료되었습니다.
  - 내 말은, 여기에 내가 설교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 사실, 이것이 아름다움에 영감을 받은 예배의 정의처럼 들리지 않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경외심은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광대한 무언가의 존재에 있는 느낌입니다.”

- Dacher Keltne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Keltner 박사는 기쁨, 사랑, 만족과 마찬가지로 경외감이 우리의 웰빙에 매우 중요하다고 썼습니다.

- 그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 효과를 비롯한 엄청난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방출을 유발합니다.

신뢰와 결속을 촉진합니다.

- 그는 경외감이 부정적인 자기 대화의 영향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침묵시킨다고 말합니다

- 계속 읽으면서 나는 매료되었다.

- 누군가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을 발견했다는 기사를 읽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경험했지만 잃었습니다.

- 흥미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집니다.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영성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주의는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 그들은 아름다움을 찾고 있습니다.

- 우리는 그들에게 논리적 주장과 윤리를 제공하고 싶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아마도 신비로움, 아름다움.

- 아름다움은 우리의 방어력을 극복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 의심스럽고 납득이 가지 않는 세대 전체가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의 놀라운 매력.

- 보세요, 예수님의 길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스캔하라고 권유합니다...그것을 찾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 하나님이 아름다움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 자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 순간의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 우리는 그림, 춤, 노래에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 아름다운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으며

가질 수 있는 양을 제한합니다.

- 드문 경우입니다.
- 우리가 가는 곳마다 능력과 기회의 한계를 상기하게 됩니다.
- 레스토랑.
- 건물.
- 수영장.
- 학교.
- 직업.
- 목록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아름다움?
- 끝없는 아름다움의 공급이 있습니다!
- 우리가 있는 우주만큼 광활합니다.
- 거의 모든 순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그렇게 할 때 창조주를 발견하거나 신의 속삭임을 듣게 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

- 이제 숲속을 산책하게 할 수는 없지만 잠시 시간을 내어 달라고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아름다움을 고려하십시오 ....

- 일련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고...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 그의 삶.
- 그의 기적.
- 그분의 자비와 은혜.
- 그의 우정.
- 심지어 그의 죽음
- 그리고 확실히 그분의 부활입니다.
- 그리고 그가 창조한 모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깊이 사로잡혀 경외하는 믿음은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 각자가 갈망하는 삶을 제공합니다.

- 심미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상징적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